

# 한국과 캄보디아 간호대학생의 삶의 질과 우울 비교

이예은<sup>1</sup> · 반금옥<sup>2</sup><sup>1</sup>충청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sup>2</sup>충청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 Comparison on Quality of Life and Depression in Nursing Students between Korea and Cambodia

Lee, Ye Eun<sup>1</sup> · Ban, Keum Ok<sup>2</sup><sup>1</sup>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Chungcheong University, Cheongju  
<sup>2</sup>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Chungcheong University, Cheongju, Korea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quality of life and depression in nursing students between Korean and Cambodians. **Method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223 students taking up a four-year nursing course in colleges located in Area A in Korea and Area B in Cambodia.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22.0. **Results:** The total score on quality of life among the Korean students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the Cambodian students ( $t=-4.596$ ,  $p<.001$ ), while the total score on depression was lower in the Korean students compared to that of the Cambodian students.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scores ( $t=5.179$ ,  $p<.001$ ). When the levels of depression were compared,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 the Korean students had 92.7% normal and 7.3% mild depression, while the Cambodian students had 80.9% normal and 19.1% mild depression ( $\chi^2=6.781$ ,  $p=.009$ ).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correlation between the total scores on depression and quality of lif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 was found in both Korean ( $r=-.721$ ,  $p<.001$ ) and Cambodian ( $r=-.508$ ,  $p<.001$ ) students. **Conclusion:** Therefore, a nursing intervention that considers the cultural differences should be developed in order to improve emotional response and quality of life of cambodian students.

**Key Words:** Quality of life; Depression; Culture; Nursing students

##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간호대학생은 환자의 생명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간호를 제공해야 하는 사명과 책임감을 갖는 전문 인력으로 성장하기 위해 대학생활 동안 전공 이론 교과목뿐만 아니라 간호술기의 훈련 및 임상실습을 병행해야 한다. 이로 인한 부담감으로 인해 간호대학생은 우울, 스트레스와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게 되고[1,2], 타 전공 분야의 대학생에 비해 삶의 질이 유의하

게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

삶의 질은 개인의 총체적 안녕을 나타내는 지표가 될 수 있으므로 환자들의 삶의 질 증진을 책임져야 할 예비 간호사인 간호대학생들의 삶의 질에 대해 관심이 더욱 요구된다[4]. 간호대학생의 삶의 질은 암기 학습, 수면과 휴식, 피로, 일상생활 활동, 업무 능력, 여가활동 참여와 경제적인 자원 등이 영향을 미치며 외국의 간호학생들도 시험, 과제, 학제, 학업 과다, 학업 관련 요소, 자유 시간 부족 등[1] 우리나라 간호대학생들과 유사한 경험을 하고 있다. 삶의 질의 주관적 측정에는 사회, 제도, 문화적 차이에서 기인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Hofstede, 2001).

**주요어:** 삶의 질, 우울, 문화, 간호대학생

**Corresponding author:** Ban, Keum Ok

Department of Nursing, Chungcheong University, 38, Wolgok-Gil, Gangnae-Myeon, Heungdeok-gu, Cheongju 28171, Korea.  
Tel: +82-43-230-2774, Fax: +82-43-230-2779, E-mail: kmoban@ok.ac.kr

**Received:** Jun 2, 2021 / **Revised:** Jun 18, 2021 / **Accepted:** Jun 19, 2021

간호대학생의 삶의 질에 대한 최근 연구들을 살펴보면 우울, 스트레스 등은 간호대학생의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확인된 바 있다[4,5].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의 증가와 함께 다양한 대상의 삶의 질을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반면에 최근까지도 간호대학생들의 삶의 질에 대한 연구는 단편적으로 접근하고 있어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6].

또한 우울과 같은 심리적 문제는 학생의 삶과 학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우울증상은 전 세계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으나 우울증상의 발현 정도는 사람에 따라,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우울 증상을 가진 학생은 우울증상을 경험하지 않은 학생에 비해 삶의 질에 대한 만족정도가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7]. 특히 간호대학생은 학과 특수성으로 전공교과 수업 및 교·내외 실습 등으로 인해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어 삶의 질이 낮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5]. 이러한 환경으로 인해 간호대학생은 비 간호대학생 보다 정신건강에 특수한 영향을 미칠 것 생각된다. 간호대학생의 우울은 삶의 질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므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간호대학생의 우울의 요인을 파악하고 우울을 감소시키기 위한 적절한 프로그램 및 전략 개발이 필요하다[4].

캄보디아는 우리나라 및 미국의 간호교육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으나 간호교육의 현지화 작업이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과 캄보디아 간호대학생은 전공과 관련된 유사성이 있으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배경이 달라 삶의 질과 우울 정도가 다를 것으로 예측되며 캄보디아인을 대상으로 연구된 간호학 논문은 몇 편에 불과하다. 따라서 현지 간호교육의 동향 파악과 간호전문직의 위상을 확립하는 토대가 될 수 있도록 학문적 부담과 환경 적응 과정에서 우울 등 다양한 정서적 증상을 경험하는 두 나라 간호대학생의 삶의 질 정도를 파악하고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간호를 제공하는 간호대학생의 사회문화적 차이에 따라 우울과 삶의 질 수준을 향상시키는 근거를 마련하고, 궁극적으로 보다 나은 간호를 제공하게 함으로써 간호대상자의 우울과 삶의 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초석이 될 것이다[8].

##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캄보디아 간호대학생의 삶의 질과 우울 수준을 비교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한국과 캄보디아 간호대학생의 영역별 삶의 질을 비교한다.
- 한국과 캄보디아 간호대학생의 우울 수준을 비교한다.

- 한국과 캄보디아 간호대학생의 삶의 질과 우울과의 관계를 파악한다.

## 연구방법

###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한국과 캄보디아 간호대학생의 삶의 질과 우울 수준을 비교하고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한국의 A지역에 위치한 간호대학생과 캄보디아 남부 B지역에 위치한 4년제 간호대학생을 편의 추출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수는 적절한 표본수를 산정하기 위하여 G\*Power 3.1 software를 이용한 결과, 유의수준( $\alpha$ ) .05, 검정력( $1-\beta$ ) .95, 효과크기( $r$ ) .30(중간)을 적용하여 표본크기를 산출한 결과 최소표본크기는 111명이었다. 탈락률을 고려하여 설문지 240부를 배부하였고, 자료분석에 불충분하게 응답한 대상자 17명은 연구의 표본에서 제외하여 본 연구 최종 대상자는 223명으로 최소 표본수를 만족하였다.

### 3. 연구도구

#### 1) 삶의 질

본 연구에서 삶의 질은 한국판 세계보건기구 삶의 질 간편형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이 도구는 세계보건기구 삶의 질 척도(World Health Organization Quality of Life assessment, WHOQOL)를 간결하게 만든 세계보건기구 삶의 질 간편형 척도(WHOQOL-BREF)를 민성길 등[9] 등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삶의 질 측정도구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환경적 등 4개 영역 24문항과 전체적인 삶의 질을 묻는 2문항의 모두 26문항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캄보디아 대학생 측정 시 영어 도구를 캄보디아 대학 교수가 캄보디아 공용어로 번역하여 사용하였으며 WHOQOL-BREF의 Cronbach's  $\alpha$ 는 .89였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한국 대학생 .92, 캄보디아 대학생 .84였다.

#### 2) 우울

본 연구에서는 Zung [10]이 개발한 20문항의 4점 척도 self-

rating depression scale을 이중훈[11]이 한국 중, 고, 대학생에게 적용하도록 번안하여 신뢰도 검증을 한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총점을 산출하여 50점 미만은 정상, 50~59점은 경증 우울, 60~69점은 중증 우울, 70점 이상은 심한 우울로 분류하였다. 캄보디아 대학생 측정 시 영어 도구를 캄보디아 대학 교수가 캄보디아 공용어로 번역하여 사용하였으며 자가평가 우울 척도의 Cronbach's  $\alpha$ 는 .84였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한국 대학생 .84, 캄보디아 대학생 .72였다.

#### 4. 자료수집 및 윤리적 고려

캄보디아를 방문하는 교수에 의해 설문지를 전달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대상자의 윤리적 보호를 위해 자료수집 전 연구개요 및 목적을 설명하였고 언제라도 연구참여를 철회할 수 있으며 철회하더라도 불이익은 전혀 없음을 설명하였다. 연구참여에 사전 동의한 학생을 최종 연구대상자로 하였다. 또한 수집된 자료는 연구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된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설문지를 읽고 연구참여를 희망한 학생들이 자기기입식으로 자료를 작성한 후 밀봉한 다음 수거하였다. 설문지 작성 시간은 20분 정도 소요되었다.

#### 5. 자료분석

본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서술적 통계를 이용하였고,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계수를 산출하였다.
- 한국과 캄보디아 대상자의 삶의 질과 우울의 차이는 t-test,  $\chi^2$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삶의 질과 우울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연구결과

### 1.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한국 간호대학생의 성별은 남학생이 9명(7.3%), 여학생이 115명(92.7%)이었고, 캄보디아 간호대학생은 남학생이 32명(36.0%), 여학생이 57명(64.0%)이었다. 건강상태에 대한 인식은 건강하다가 한국(56명, 45.2%)과 캄보디아(46명, 51.7%) 대학생 모두 가장 높았다. 보통이라는 한국 대학생 49명(39.5%), 캄보디아 대학생 34명(38.2%)로 측정되었다. 한국 대학생은 개신교가 31명(25.0%)로 가장 많았고 캄보디아 대학생은 불교가 73명(82.0%)로 가장 많았다(표 1).

### 2. 한국과 캄보디아 간호대학생의 측정 변수 비교

삶의 질 총점을 비교한 결과 한국 학생( $55.49 \pm 6.51$ )이 캄보디아 학생( $51.57 \pm 5.56$ )에 비해 점수가 높았으며 점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t = -4.596, p < .001$ ). 영역별 삶의 질 정

표 1.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N=223)

변수	구분	한국 (n=124)	캄보디아 (n=89)
		n (%)	n (%)
연령		22.0±1.1세	20.0±1.3세
성별	남성	9 (7.3)	32 (36.0)
	여성	115 (92.7)	57 (64.0)
건강상태	건강하다	56 (45.2)	46 (51.7)
	보통이다	49 (39.5)	34 (38.2)
	건강하지 못하다	19 (15.3)	9 (10.1)
종교	개신교	31 (25.0)	13 (14.6)
	불교	18 (14.5)	73 (82.0)
	천주교	4 (3.2)	0 (0.0)
	없음	71 (57.3)	3 (3.4)
한달 용돈	150만원 이상	3 (2.4)	50~100달러 12 (13.5)
	100~149만원	22 (17.7)	50달러 미만 77 (86.5)
	50~99만원	76 (61.3)	
	50만원 미만	26 (21.0)	

도를 비교한 결과 신체적, 정서적 영역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사회적 관계 영역( $t=-2.468, p=.014$ )과 환경적 영역( $t=-10.537, p<.001$ )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 총점을 비교한 결과 한국 학생( $38.41 \pm 7.44$ )이 캄보디아 학생( $43.43 \pm 6.25$ )에 비해 우울 점수가 낮았으며 점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t=5.179, p<.001$ ). 우울 수준을 비교했을 때에도 한국 학생은 정상이 92.7%, 경증 우울이 7.3%인 반면 캄보디아 학생은 정상이 80.9%, 경증이 19.1%로 두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chi^2=6.781, p=.009$ ) (표 2).

### 3. 우울과 삶의 질의 상관관계

캄보디아 간호대학생의 삶의 질과 우울 간의 상관관계도 음

적 상관관계( $r=-.508, p<.001$ )를 보였다. 전체 삶의 질과 영역별 삶의 질은 모두 양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표 3).

한국 간호대학생의 삶의 질과 우울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강한 음적 상관관계( $r=-.721, p<.001$ )를 보였다. 전체 삶의 질과 영역별 삶의 질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적 상관관계를 보였다(표 4).

## 논 의

본 연구는 한국과 캄보디아 간호대학생의 삶의 질과 우울 수준을 파악하여 비교하고 삶의 질과 우울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고자 실시하였다. 한국과 캄보디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차이를 비교하고 삶의 질과 우울과의 관련성을 파악한 결과를 통

표 2. 삶의 질과 우울

변수	한국	캄보디아	$\chi^2$ or t or F	p
삶의 질	55.49±6.51	51.57±5.56	-4.596	< .001
신체적	13.18±1.65	12.85±1.68	-1.398	.164
정서적	13.52±1.80	13.52±1.76	0.018	.986
사회적 관계	14.20±2.65	13.39±1.91	-2.468	.014
환경적	14.59±2.01	11.80±1.75	-10.537	< .001
우울	38.41±7.44	43.43±6.25	5.179	< .001
정상	92.7%	80.9%	6.781	.009
경증	7.3%	19.1%		

표 3. 캄보디아 간호대학생의 삶의 질과 우울 상관관계

변수	삶의 질					우울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관계	환경적		
삶의 질	1					
신체적	.710 (< .001)	1				
정서적	.779 (< .001)	.400 (< .001)	1			
사회적 관계	.822 (< .001)	.404 (< .001)	.534 (< .001)	1		
환경적	.813 (< .001)	.450 (< .001)	.499 (< .001)	.592 (< .001)	1	
우울	-.508 (< .001)	-.264 (.012)	-.484 (< .001)	-.506 (< .001)	-.319 (.002)	1

표 4. 한국 간호대학생의 삶의 질과 우울 상관관계

변수	삶의 질					우울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관계	환경적		
삶의 질	1					
신체적	.734 (< .001)	1				
정서적	.802 (< .001)	.480 (< .001)	1			
사회적 관계	.864 (< .001)	.478 (< .001)	.626 (< .001)	1		
환경적	.785 (< .001)	.499 (< .001)	.488 (< .001)	.531 (< .001)	1	
우울	-.721 (< .001)	-.531 (< .001)	-.530 (.002)	-.667 (< .001)	-.550 (.003)	1

하여 향후 사회 경제적, 문화적 차이를 고려한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근거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 경증 우울은 한국 학생의 7.3%, 캄보디아 학생의 19.1%로 나타나서 황은희 등[12]의 연구에서 44.9%에 달하는 상당수의 학생들이 우울집단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 보다는 우울 학생의 비율이 적었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여러 연구에서 우울 정도는 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13], 우울 수준이 높은 학생들을 조기에 발견하여 중재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한국과 외국의 대학생들에게서 우울과 관련된 자살 및 응급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우울과 관련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며, 간호대학생들에게 우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면 건강상태, 대인관계, 전공만족도, 전공에 대한 자신감이 저하되어 미래 간호전문직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될 수도 있다[14]. 그러므로 간호대학생들에게는 다양한 상황에서도 자신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유연하게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자신감 향상을 위한 대처방안이 필요하다[15].

삶의 질은 한국 학생이 55.49±6.51, 캄보디아 학생이 51.57±5.56, 전체 평균 52.92점이었으며, 민성길 등[10]의 연구에서 일반대학생이 48.63점, 의과대학생이 48.53점인 것과 비교해보면 높은 편이었다. 본 연구와 동일한 3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명숙, 노기옥, 김선호[5]의 연구에서 73.49점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박보영과 심옥수[3] 연구에서 1~4학년의 간호대학생의 경우 64.00점으로 이와 비교하면 다소 낮은 편이었다. 박병석[16]의 연구에서 대학생들은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질을 높게 평가하였고,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경아[17]의 연구에서도 월 소득과 우울이 삶의 질에 주요 영향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캄보디아는 기준을 밑도는 열악한 간호교육 인프라, 자격 미달의 간호학 교수 등이 간호인력 양성 전반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등 열악한 교육 환경 속에서 학습하는 학생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18].

삶의 질에 대한 결과는 국가별 문화별 차이가 발생하게 되며 동일 국가에서도 학년마다 전공 교과목에 대한 부담이나 대학교과과정 및 임상실습 등에 따른 차이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하고[5], 삶의 질을 측정하는 시기에 따라서도 다를 것임을 감안할 때 반복 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한국과 캄보디아에서 각각 1개 간호대학을 대상으로 자료수집을 하였으나, 서울 및 충북 지역에 소재한 간호대학을 포함한 김명숙, 노기옥, 김선호[5]의 연구결과와 비교하면 동일한 학년이라도 지역에 따른 차이를 감안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

다. 더불어 이와 같이 간호대학생의 학년, 지역적 특색과 함께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들을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간호대학생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지각된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삶의 만족을 고려한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뿐만 아니라 대학 내의 간호 교과과정에서의 반영과 사회적 개선 및 지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특히 삶에 대한 만족이 높은 사람이 보다 낮은 사람에 비해 우울, 불안과 같은 부정정서를 적게 경험하고 자존감이 높으며 긍정정서를 더 많이 경험하므로[19], 간호대학생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가정, 대학, 사회 측면에서 그들의 삶의 만족을 고취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언한다[8].

삶의 질과 우울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4]에서 우울과 삶의 질은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김명숙, 노기옥, 김선호[5]의 연구에서도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나 일치하였다. 브라질에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에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우울 비율이 높고 삶의 질이 낮아졌으며 우울이 있는 그룹에서 삶의 질이 낮았다[7]. 우울과 삶의 질 간에는 전반적으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20],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생활 스트레스나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는 연구결과에서 제시하듯이[21, 22] 간호대학생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이들이 지각하고 있는 우울에 대한 관심과 관리가 요구된다고 하겠다[4].

간호대학생은 타 전공 학생과 달리 이론과 실습 교육과정을 병행하며 시험, 과제와 같은 학업적 스트레스 외에도 임상현장에서 환자의 고통, 사망,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부족과 같은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한다[23]. 이러한 스트레스가 누적되면 분노, 불안, 우울과 같은 심리적인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

간호대학생은 이론과 실습 훈련을 통한 교육과정을 거치는 동안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며 학문이나 임상실습 도전, 기술의 진보, 재정적 걱정, 대인관계, 가족문제, 신체적·정신적 문제, 부적절한 지지 및 대처기술로 인해 스트레스 요인이 발생한다[24]. 하지만 과도한 스트레스는 개인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여 불안, 걱정, 긴장, 우울 등의 문제를 유발하는데 특히 간호대학생은 학업과 임상실습으로 인해 문제중심적 대처능력과 임상실습 만족도가 떨어지며 우울과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4, 24]. 또한 높은 수준의 우울을 지닌 간호대학생들은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겪고 있으므로 간호대학생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이론과 실습 교육과정을 병행하지 않은 타대학생들이 경험하는 시험, 과제와 같은 학업적 스트레스 외에도 임상현장에서의 환자의 고통, 죽음, 전문적인 지식

과 기술 부족과 같은 다양한 정서적 경험을 한다[23]. 본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간호대학생의 삶의 질과 우울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간호대학생의 전반적인 삶의 측면에 대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다만 본 연구가 일개 간호대학의 재학 중인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연구인 점과 해당 자료수집 시기를 감안하여 결과의 일반화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추후 연구에서는 결과에 영향을 주는 외적 요인들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한국과 캄보디아 간호대학생의 삶의 질과 우울을 비교하고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 한국과 캄보디아 간호대학생의 우울과 삶의 질은 차이가 있으나 삶의 질과 우울은 두 그룹 모두에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본 연구는 한국과 캄보디아의 1개 지역 소재 간호대학을 편의표본으로 추출하였으므로 일반화하여 해석하기에 주의해야 한다. 다양한 사회 문화적 배경을 가진 간호대학생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함께 고려하여 우울의 영향을 규명한 연구가 부족하므로 추후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사회 문화적 차이를 고려한 정서적 반응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간호중재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함을 제안한다.

## REFERENCES

1. Timmins F, Kalisz M. Aspects of nurse education programmes that frequently cause stress to nursing students - Fact-finding sample survey. *Nurse Education Today*. 2002;22(3):203-211.  
<https://doi.org/10.1054/nedt.2001.0698>
2. 고예정, 정명순, 박경숙. 아로마 흡입법이 간호대학생의 시험불안, 스트레스 및 혈중 코티졸에 미치는 효과. *기본간호학회지*. 2013;20(4):410-418.  
<https://doi.org/10.7739/jkafn.2013.20.4.410>
3. 박보영, 심옥수. 간호대학생과 일반대학생의 삶의 질 영향요인.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16;16(11):811-830.
4. 김영경, 권수혜, 손혜경. 간호대학생의 지각된 스트레스, 우울, 긍정심리자본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자료분석학회*. 2018;20(3): 1579-1593.  
<https://doi.org/10.37727/jkdas.2018.20.3.1579>
5. 김명숙, 노기옥, 김선호. 간호대학생의 지각된 스트레스와 삶의 질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한국자료분석학회*. 2017;19(4):2233-2245  
<https://doi.org/10.37727/jkdas.2017.19.4.2233>
6. 박공주, 배영순, 손경희. 간호대학생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융합연구. *한국융합학회*. 2017;8(6):65-73.  
<https://doi.org/10.15207/JKCS.2017.8.6.065>
7. Ismelinda Maria Diniz Mendes Souza, Helena Borges Martins da Silva Paro, Rogerio Rizo Morales, Rogerio de Melo Costa Pinto, Carlos Henrique Martins da Silva.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and depressive symptoms in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Revista Latino-Americana de Enfermagem*. 2012;20(4):736-743.  
<https://doi.org/10.1590/S0104-11692012000400014>
8. 권수혜, 손혜경, 김경미. 간호대학생의 우울 영향요인. *한국자료분석학회*. 2017;19(3):1685-1697.  
<https://doi.org/10.37727/jkdas.2017.19.3.1685>
9. 민성길, 이창일, 서신영, 김동기. 한국판 세계보건기구 삶의 질 간편형 척도(WHOQOL-BREF)의 개발. *신경정신의학*. 2000;39(3):571-579.
10. Zung WW. A self-rating depression scale.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1965;12:63-70.  
[https://doi.org/10.1007/978-3-642-70486-4\\_21](https://doi.org/10.1007/978-3-642-70486-4_21)
11. 이중훈. 한국형 자가평가 우울척도의 개발. *영남의대학술지*. 1995;12(2):292-305.  
<https://doi.org/10.12701/yujm.1995.12.2.292>
12. 황은희, 김건희, 신수진. 간호대학생의 생활 스트레스, 수면의 질과 우울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한국웰니스학회지*. 2016;11(3):239-248.  
<https://doi.org/10.21097/ksw.2016.08.11.3.239>
13. 최숙경. 간호대학생의 생활 스트레스와 우울과의 융복합적 관련성. *디지털융복합연구*. 2018;16 (5):257-266.  
<https://doi.org/10.14400/JDC.2018.16.5.257>
14. 박현주, 장인순. 일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우울, 대처방법과 임상실습 만족도. *한국간호교육학회*. 2010;16(1):14-23.
15. 염영란, 최금봉. 마음챙김 명상 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지각, 우울 및 자아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동서간호학연구지*. 2013;19(2):176-187.  
<https://doi.org/10.14370/jewnr.2013.19.2.104>
16. 박범석. 의과대학생과 일반대학생의 삶의 질과 관련 요인

- 비교 분석 [석사학위논문]. [인천]. 가천대학교; 2014.
17. 김경아. 임상실습 전·후 간호대학생들의 삶의 질에 영향 요인.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018;19(12):774-785.  
<https://doi.org/10.5762/KAIS.2018.19.12.774>
  18. 조명선, 양숙자. 캄보디아의 간호교육 현황 및 이슈. 한국 보건간호학회지. 2016;30(2):288-299.
  19. 정안수, 김상훈, 김정호, 김남철, 정형식, 박종철 등. 대학생들의 생활 스트레스와 우울 증상과의 관계: 긍정심리의 조절효과. 우울조울병. 2016;14(3):166-171.
  20. 백선숙, 조주연. 대학생의 생활 스트레스, 우울, 스마트폰 중독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017;18(8):248-256.  
<https://doi.org/10.5762/KAIS.2017.18.8.248>
  21. 이명숙, 김금순, 조미경, 안정원, 김순오.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건강증진행위, 삶의 질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근관절건강학회지. 2014;21(2):125-134.  
<https://doi.org/10.5953/JMJH.2014.21.2.125>
  22. 송영숙. 간호대학생의 생활 스트레스와 삶의 질. 한국간호 교육학회지. 2012;18(1):71-80.  
<https://doi.org/10.5977/jkasne.2012.18.1.071>
  23. Jimenez C, Navia-Osorio PM, Diaz CV. Stress and health in novice and experienced nursing students. Journal of Advanced Nursing. 2010;66(2):442-455.  
<https://doi.org/10.1111/j.1365-2648.2009.05183.x>
  24. Ratanasiripong P, Janet FP, Ratanasiripong N, Kathalae D. Stress and anxiety management in nursing students: Biofeedback and mindfulness meditation.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2015;54 (9):520-524.  
<https://doi.org/10.3928/01484834-20150814-07>